

2018 광주비엔날레 기념 특별전·기획전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막을 올린 2018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해 다양한 특별전과 기획전이 열린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북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 지역 출신 중견작가들의 목직 한 2인전, 패기 넘치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 등 스펙트럼도 다채롭다.



은암미술관 1층 전시실 벽면을 가득 채운 왕귀평 작 '북한 2012 No.4'는 28m에 이르는 대작으로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인물군상이 인상적이다.

# 28m 사진속 北군상

### ◇은암미술관 왕귀평 사진전

미술관 1층 전체를 28m에 달하는 대형 사진이 감싸고 있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대형 스타디움을 운집한 수만의 인파. 사진 속에는 굵은 표정의 군인들 모습부터, 무표정의 여성들까지 수많은 인물 군상이 자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모습도 보인다. 내몽고 출신 사진 작가 왕귀평의 작품 '북한 2012 No.4'와 '북한 2012 No.

2'다. 왕작가는 지난 2011년부터 5차례 북한을 방문, 북한의 건축물과 일상생활을 꾸준히 앵글에 담아왔다.

광주 은암미술관은 왕귀평 작가를 초청, 비엔날레 특별전으로 '절대경관- Spectacle Absolute' 전(11월11일까지)을 열고 있다. 북한에서 촬영한 영상을 비롯해 사진 작품 등 14점은 모두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들이다.

북경으로 건너가 수목화와 현대 미술이론을 전공하며 90년대 개방 이후 중국의 급변하는 정치·사회·문화를 경험한 왕작가는 2005년부터 폴란드, 동독, 베트남 등 옛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 등 사회주의의 이념을 보여주는 건축물을 대형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그가 북한을 방문해 찍은 스펙터클한 군중 사진 속에는 무언가에 열광하는 듯한 맹목적인 모습이 모아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인간'의 얼굴이 느껴진다. 미술관 2층에 전시된 작품은 개개인의 인간적인 모습에 주목했다. 운동선수, 과학자, 공장 노동자, 교수,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의 모습을 실재 인물 크기로 전시했으며 평양학교의 모습 등도 앵글에 담았다. 또 2012년 평양의 모습을 담은 영상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2018광주비엔날레의 주제전 중 하나로 미술관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문법강 큐레이터의 '북한미술: 사회주의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전과 연계해 관람하면 좋을 듯하다. 문의 062-226-6677.

# 블랙 페인팅

### ◇담빛예술창고-정영창&김유섭 2인전

담양 담빛예술창고는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정영창과 조선평대 교수 김유섭 작가를 초청, 비엔날레 기념전을 준비했다. 오는 11월 4일까지 열리는 전시 '경계와 다리:블랙 페인팅'전은 대작 30여점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다.

두 살 터울의 두 작가는 정치, 사회, 예술이 불안정한 시기였던 1970-80년대 독일 유학을 떠난 공통점이 있다. 또 강렬한 인상의 '블랙 페인팅'을 주제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목포 출신으로 카렐루흐대학,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을 거쳐 현재 독일에서 머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영창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쟁과 국가의 폭력에 대한 침묵적 저항의 표현법과 생명과 인권의 존중 등을 추상적 방식으로 표현한 블랙페인팅 작품들을 선보인다.

오랫동안 탐구해온 죽음의 이미지를 비롯해 '나는 누구인



가' 시리즈와 함께 위르겐 힌츠페터, 김정은 국방위원장, 김재규, 체르노빌 소년 등 '역사속 개인들'의 모습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화면에 담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귀국 후 개인작업과 함께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유섭 작가의 작품은 목직 한 검은색이 주는 압도감이 화면을 장악한다.



김유섭 작 '검은 그림'(왼쪽) 정영창 작 '죽음'

투탕과 거칠게 칠한 붓터치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표현해 온 김 작가는 대표작인 "검은 그림" 시리즈를 그리면서 회화 본질에 대한 성찰과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광주 출신인 김 작가는 조선평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미술학 박사)했으며 독일 베를린 국립종합예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문의 061-383-8240.

# 가공할 헛소리

### ◇네이버문화재단 '헬로! 아티스트'

네이버문화재단은 최근 광주 금남로에 개관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 6층 전시장에서 비엔날레 특별전시 '헬로! 아티스트' 전(11월 11일까지)을 갖는다.

'가공할 헛소리(monstrous moonshin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네이버 '헬로! 아티스트'에 소개된 김실비, 김동희, 윤지영 작가가 참여한다. '가공할 헛소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시각 언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실제의 감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는 전시다.

김실비 작가는 오늘날 우리가 대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종교적 표현과 신앙의 구조를 이용해 시각화한 신작 '회한의 사

당'을 선보이며 윤지영 작가는 신작 '불구하고'와 '오죽-갯, -오면'을 통해 헛것에 대응하는 취약한 인간의 본성과 한계, 불안의 심리를 드러낸다.

김동희 작가는 광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과 커튼 구조물을 매개로 공간과 환경을 새롭게 제안하는 '프라이머, 오피시티'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1577-317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

박유자전 17일까지 靑창작스튜디오 B동

전시장엔 다양한 느낌의 해바라기 꽃이 한가득이다. 해바라기를 상징하는 노란색 꽃잎은 모든 작품에 등장하지만 보라, 주황, 파랑 등 다채로운 바탕색과 함께 어우러진 해바라기 꽃은 각기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사랑합니다-희망'

박유자 작가 개인전이 오는 17일까지 광주시 서구 아시아 창작스튜디오 B동 205호 작가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지난 2002년부터 줄곧 해바라기 작업을 해온 박 작가는 이번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소품들을 선보인다.

박 작가가 생각하는 '해바라기'의 가장 큰 이미지는 '희망'이다. 단순히 태양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갈구하고 지켜보고 바라보는 모습이다.

그녀가 담아내는 해바라기는 하늘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기도 하지만, 시들고 늘어져 기운을 잃은 모습이기도 하다. 가는 펜으로 자유분방하고 섬세한 '선'의 매력을 절묘하게 살려 얼핏 판화로도 보이는 작품은 아크릴 물감을 활용해 다양한 바탕색을 칠한 후 여러가지 빛깔을 넣어 가며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무더웠던 올 여름, 전시준비를 하며 단련의 시간을 보낸 작가는 해바라기만 그렸던 기존 작품과 이번 전시에서는 달리 화면을 위아래로 가로지르는, 다채로운 선을 그려 넣은 작품도 선보인다.

조선대 미술대 서양학과를 졸업한 박작가는 지금까지 16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아트페어와 단체전에 참여했다. 환경미술협회, 사단법인 에보코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10-4661-2853. /김미은 기자 mekim@

# 한·중·일 언론인 13일 광주서 문화포럼

한·중·일 3개국의 언론인들이 광주에 모여 문화도시 포럼을 연다. '2018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언론포럼'이 오는 13일 오후 3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성장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한·중·일 문화도시 협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종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과 장철안 중국 중산대 신문방송학과장의 기조 강연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한·중·일의 주요 지역 언론인 17명이 참여한다. 광주에서는 박진현 광주일보 제작국장조와 조덕진 무등일보 편집국장 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혜승 MBC 충북 전략사업부장조와 이용탁 JIBS 제주방송 보도제작본부장 등 한국 측 6명이 토론에 참가한다. 귀 페이밍 중국 취안저우 석간신문 편집장(주필), 시부야 후미히코 일본 가나가와신문 보도부장, 루싱하이 CCTV 한국지국장도 참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9.1(토) ▶ 11.30(금)

**축제 1** 객실 가을 패키지 & 한가위 패키지 (9.22 - 26 (5일간))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60% DC**  
한가위 패키지 **7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테마니' 스파게티 & 스테이크 축제

커피	3,000원
스파게티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22,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